

한전·전남도, '스마트팜' 기술 농가 생산량·소득↑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미래형 온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준공



한국전력과 전남도가 공동으로 투자해 조성한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24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소재한 전남도농업기술원 내에 준공됐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선일 전남도농업기술원장(왼쪽 일곱 번째) 등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전남도가 태양광, 지열 등을 활용한 미래형 온실'을 농업분야에 공급해 농업생산량과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전은 24일 나주시 산포면에 소재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은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히트펌프(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 뒤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공급하는 미래형 첨단 온

실을 뜻한다. 이 온실은 ICT기반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제어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날 준공된 실증단지는 한전과 전남도가 연구자금을 공동 투자해 전남도농업기술원 내 부지 3300㎡에 조성했다. 단지 내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첨단 유리온실 1동(1300㎡), 버섯연구동 1동(508㎡), 신재생설비(1000㎡) 등이 구축됐다. 이 시설은 태양광과 ESS가 결합

된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으로서 국내 최초의 시설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작물 재배 온실로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의 최적 공급모형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온실·버섯 재배사 내부에서 최신 재배시설을 활용해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번 실증 연구는 농업분야와 에너지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화한 것으로, 양 기관은 향후 실증연구가 성공할 경우 사업모형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농업의 자동화와 선진화를 앞당겨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난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사용 전기와 화석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와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20%를 농업분야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은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전남 귀농인 '절반' 연고지로 돌아갔다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지역 귀농인 절반은 도시로 나갔다가 연고지로 회귀했으며, 귀촌인 10명 중 3명은 도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귀농은 감소한 반면, 귀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스 7월호에 따르면 전남지역 귀농인의 47.6%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한 반면, 귀촌인의 34.7%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귀농인의 39.8%, 귀촌인의 29.2%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귀촌인 34% 도시 출신

지난해 귀농 ↓ · 귀촌 ↑

준비기간 5년미만 최다

응답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5년 미만의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응답이 귀농인(56.6%)과 귀촌인(49.0%) 모두 높았다.

이런 조사는 지난 1월 22일~26일(5일간) 전남 21개 시군(목포시 제외)에서 귀농귀촌 대상자 132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귀농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전국 귀농인은 1만83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며 전남 귀농인은 2909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귀촌인의 경우 전국 귀촌인은 49만7187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전남 귀촌인은 3만1768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나주시(224명, 7.1%), 고흥군(206명, 7.1%), 해남군(199명, 6.8%)에 귀촌인이 많았으며 순천시(4385명, 11.6%), 여수시(4142명, 11.0%), 무안군(3449명, 9.1%)에 귀촌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호 기자

동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광주 동구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정목표 실현을 목표로 민선7기 구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와 참여, 주민소통, 마을공동체, 인문정신을 행정에 반영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도심쇠퇴에 대응해 구도심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역신 성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구인 '문화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점이다.

추진단에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문화관광과와 도시재생사업뉴딜 사업,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를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전담할 도시재생과가 배치된다.

서구, 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법률상담터 인기

광주 서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 '법률상담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법률상담터 개편 사업에 공모하여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상담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상담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정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 정보제공, 맞춤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분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

남구, 연말까지 매월 인권 토크 콘서트

광주 남구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인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련동커뮤니티센터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인권 콘서트는 강사 위주의 딱딱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례 위주의 인권 문제가 접목돼 펼쳐진다.

27일에는 '인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세계청년축제추진단장과 광주시 청년위원을 맡고 있는 강수훈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강단에 오른다.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권 토크 콘서트는 다음달 30일에 열리며 최은순 참교육위원한전국하부모회 회장이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북구, 2018년 주민자치학교 개최

광주 북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각종 주민자치위원장 및 신규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주민자치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주도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을 주제로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폭염 취약세대 방문 호평

18일 시작한 광주 광산구의 폭염대책 '공직자 폭염취약세대 방문'이 인기가 있다.

광산구 공직자 2인1팀 148조는 1주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 1,063세대를 방문해 인부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냉방기·환기시설 점검은 물론이고 리모컨 건전지 교체와 멀티탭 연결 등에도 손을 넣어주고 있다.

이밖에도 공직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산동 세대에는 청소도움을 요청하고 운남동의 거동불편 어르신 세대와 우산동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비수급 세대를 알리는 등 방문지에 관련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에 보고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경제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병행해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2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민선7기 경제정책은 일자리 중심 투자 유치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의원은 "현재 경기 하락국면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 유지와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전남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와 지급액

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유치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더 늘려 고용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전남도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

부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조성사업 협약서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해 특혜논란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태 의원은 "민선7기 전남도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표방하며 도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으나,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전남도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용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